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¹⁾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민주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I. 검토배경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현재 9.9%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15~64세, 4.1%)의 2.6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역시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었지만(15~64세 고용률 (2000년 61.5% → 2014년 65.3% → 2015년 6월 66%), 청년고용률은 2004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 4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의 2/3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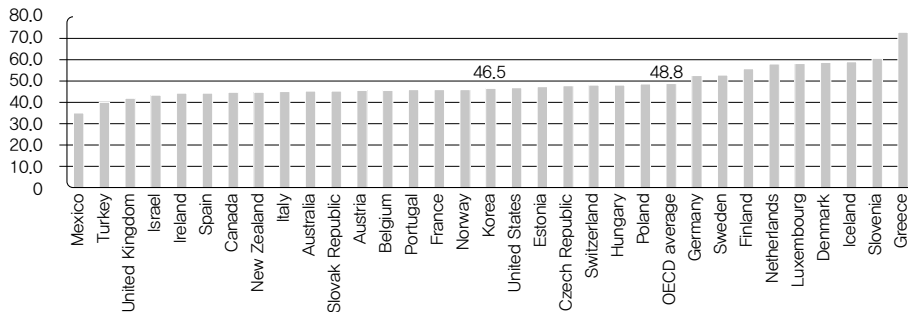
이렇게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시사 하듯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치에 비해 높지 않다. 청년층의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 48.8%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6.5%로 오히려 더 낮은 편이다.²⁾

1) 본고는 제51회 미래인재포럼(2015년 9월 18일)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청년기(15~29세) 중 평균 7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중 6.2년은 전업학생으로, 0.8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반면, OECD 평균적으로는 청년들이 청년기의 평균 7.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그 중 5.3년은 전업학생으로, 2.0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OECD 주요국의 경우 높은 교육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결코 낮지 않은 이유가 일학습병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림 1. 청년층의 교육참여율

(단위: %)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평균에 비해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니트(NEET)족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니트족의 실태가 과연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 니트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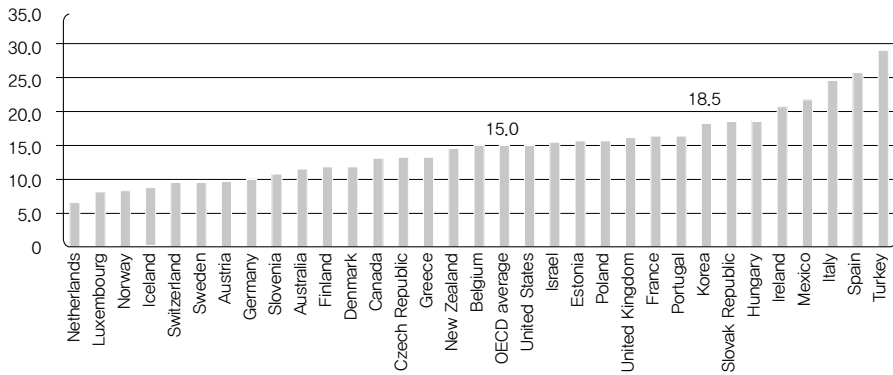
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니트 문제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15%) 보다 3.5%p 높다. 슬로바키아(18.8%), 헝가리(18.9%)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청년 니트 비율을 보이며, 우리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21.1%), 멕시코(22.0%), 이탈리아(24.6%), 스페인(25.8%), 터키(29.2%) 정도이다.³⁾

3) 그러나 현행 OECD의 니트 정의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황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OECD의 니트 정의에 따르면, 정규교육 참여자와 고용된 이들만을 니트 인구에서 제외하여, 사설학원 등 비형식적 교육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청년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OECD 청년층의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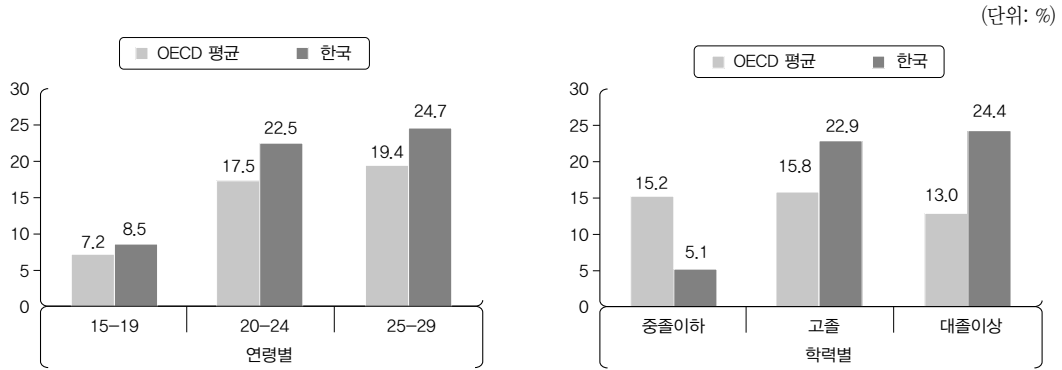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우리나라 니트의 내부 구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20대 니트 비율이 높고,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 국가 중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가 유일하다. 또한 OECD 니트 정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와 비경활자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활 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음). OECD 평균으로 실업자 니트는 6.5%, 비경활 니트는 8.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니트는 2.9%에 불과하지만, 비경활 니트는 무려 15.6%에 달한다.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설학원 등을 이용한 장기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거나 구직 단념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림 3. 청년층의 연령별, 학력별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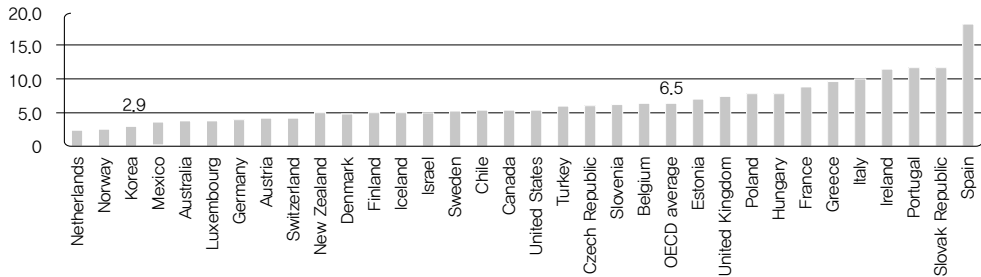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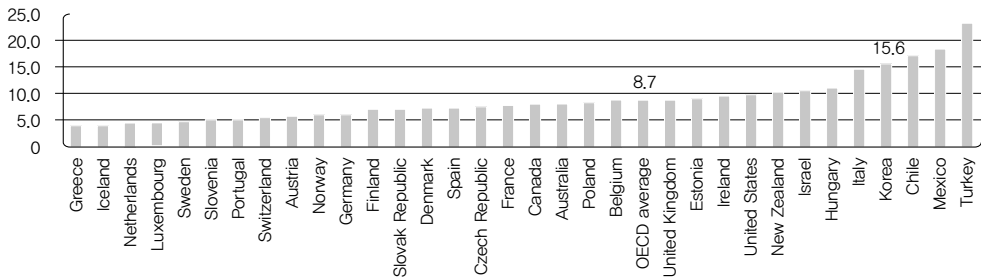
그림 4.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활 비율

(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 비율

(단위: %)



(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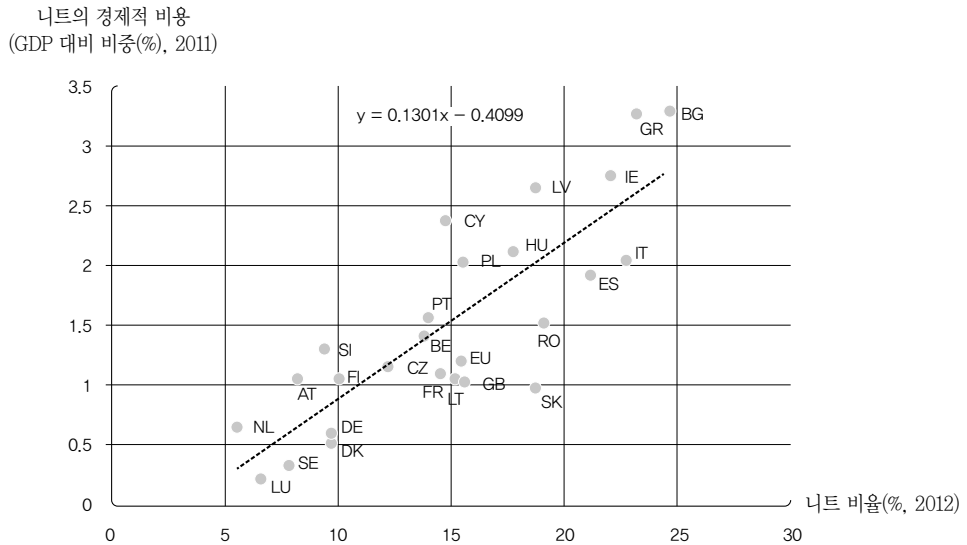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이슈 분석

한편, EU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니트의 경제적 비용(2011년)은 EU 26개 국 평균으로 GDP의 1.21%에 달한다. EU 26개 국 전체적으로는 총 1,530억 유로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실업급여, 교육관련 수당 등 정부 재정비용은 109억 유로, 니트의 상실된 소득 등의 비용은 1,421억 유로로 추정되었다. 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10,651유로 수준이었다. EU 국가 간 정부 재정 지원 정도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에는 [그림 5]와 같이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1.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14년).

그림 5.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간의 관계



자료: EU(2012)

주: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사이프러스, CZ 체코,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S 스페인, EU 유럽연합 26개국 평균, FI 핀란드, FR 프랑스, GR 그리스, GB 영국,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T 이탈리아,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크,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2.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니트 규모 및 비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니트의 규모 및 비율을 여러 정의(정의 1~4)⁴⁾에 따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때, OECD 니트 정의에서 입시학원, 취업학원 등 진학·취업을 위해 비정규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정의2) OECD 평균과 유사한 15%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 정책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협소한 정의(정의4, 그냥 씬 경우)의 니트 비율은 6.4% 수준으로(OECD 기준 니트 비율의 43% 수준) 역시 낮지 않다. 또한 다른 정의에 따른 니트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의4에 따른 니트 비율은 최근 증가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정의별 NEET 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자 포함	정의1	19.86	19.17	18.54	18.57	19.05	19.25	18.8	18.47	18.05	17.83
	정의2	16.53	16.06	15.44	15.39	15.98	15.7	15.44	15.23	15.12	14.79
	정의3	12.78	11.79	10.97	10.79	11.4	10.6	10.36	10.21	10.02	9.73
	정의4	6.89	6.42	5.84	5.87	6.6	6.11	6.16	6.36	6.53	6.44
실업자 제외	정의1	16.43	15.88	15.58	15.75	15.95	16.28	16.0	15.62	15.09	14.38
	정의2	13.12	12.79	12.51	12.59	12.92	12.77	12.69	12.44	12.2	11.43
	정의3	9.5	8.68	8.24	8.16	8.52	7.9	7.91	7.67	7.42	6.78
	정의4	3.66	3.34	3.16	3.27	3.77	3.46	3.76	3.86	3.95	3.55
15-29세 인구 (만 명)		992	984	986	982	978	971	959	952	955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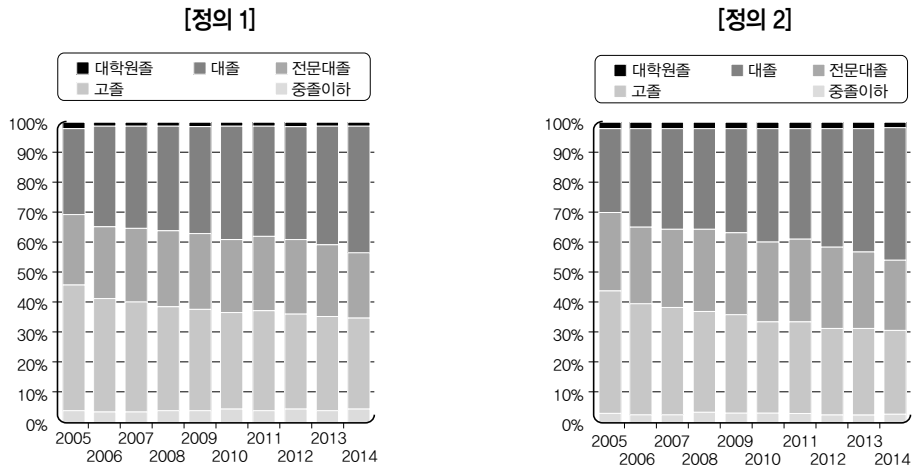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졸자 전공 계열별로 보면, 대졸 니트의 40% 내외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고, 예체능계열 비중이 증가 추세인 반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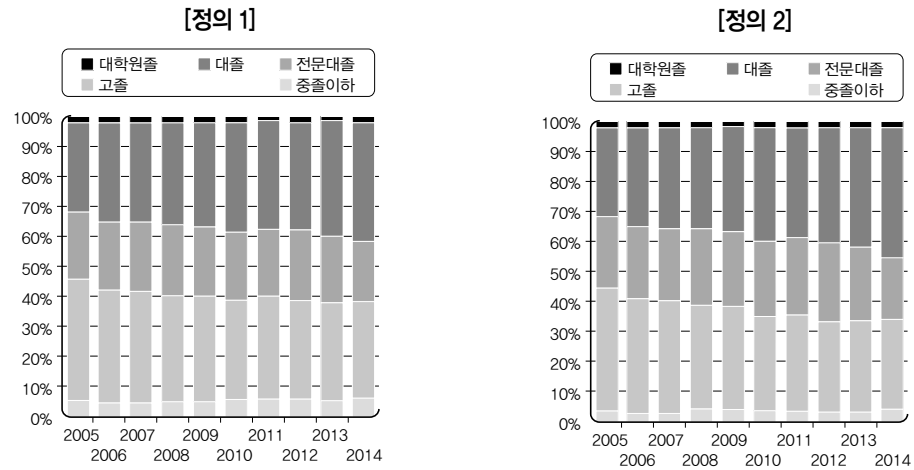
4) (정의 1)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OECD 기준), (정의 2) '정의 1'에서 ②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③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인 사람을 제외, (정의 3) '정의 2'에서 ④ '발령대기', ⑤ '취업준비', ⑥ '진학준비', 그리고 ⑦ '군입대 대기'인 사람을 제외, (정의 4) '정의 3'에서 ⑧ '결혼준비', ⑨ '가사', 그리고 ⑩ '육아'인 사람을 제외. 즉, 그냥 '쉬었음'에 해당

그림 6. 니트 중 학력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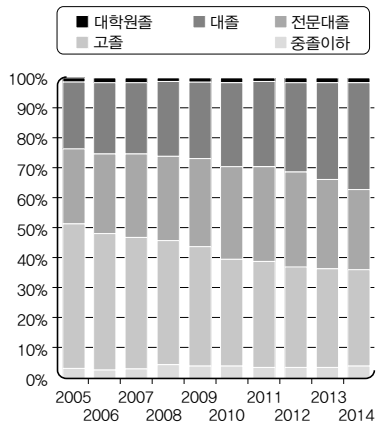
(가) 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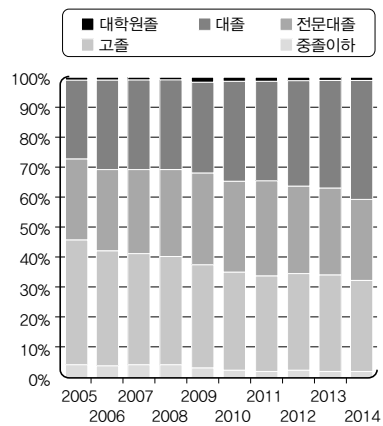
(나) 실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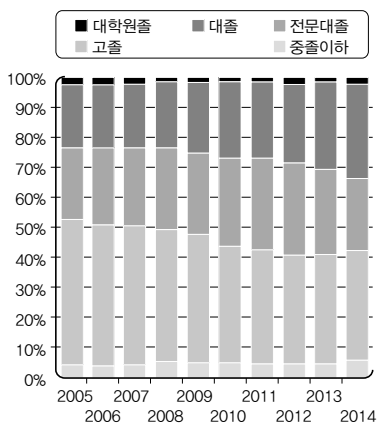
[정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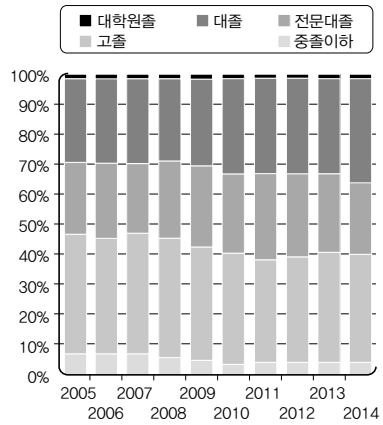
[정의 4]



[정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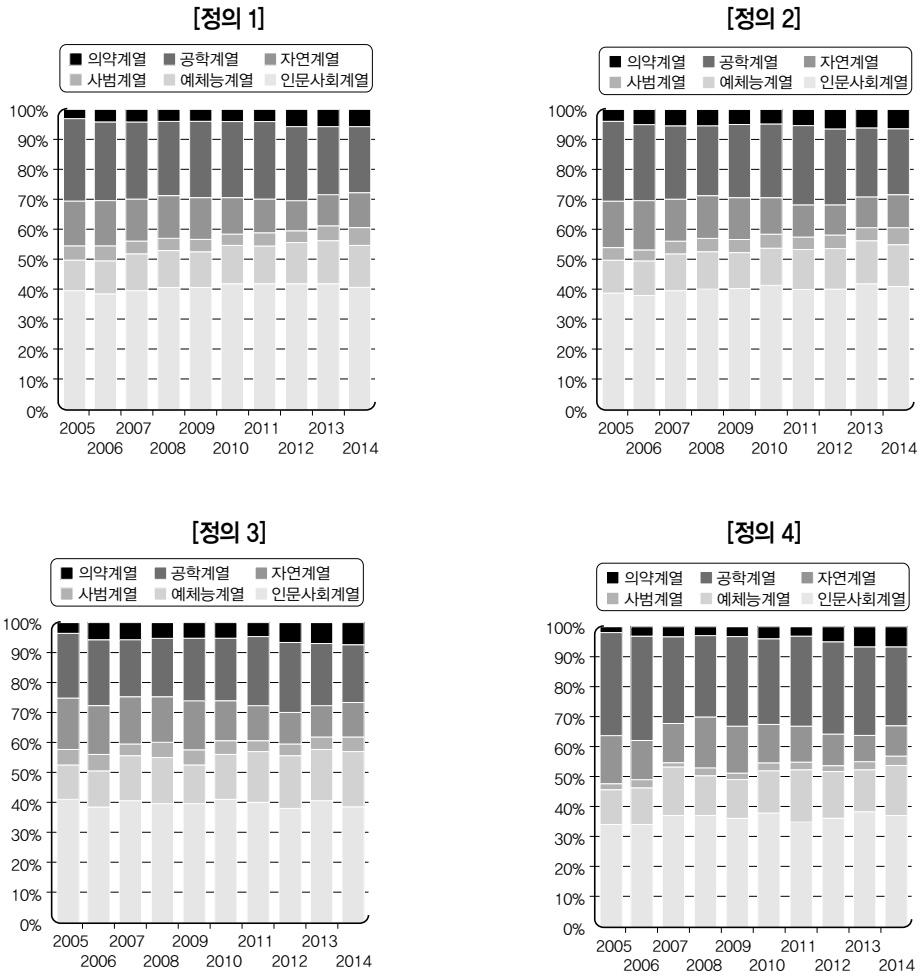


[정의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대졸 니트 중 전공계열별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청년 니트의 세부 특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⁵⁾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니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다소 높고(55.1%로 실업자 45.7%, 취업자 51.8%보다 높음),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9.9%,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5.5%로 실업자의 18.5%, 54.4%, 취업자의 17.3%, 51.0%보다 높음)과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월평균 가구소득이 니트의 경우 262.9만 원에 그친 반면, 취업자는 267.9만 원, 실업자는 286.3만 원에 달함),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73.6%로 실업자 72.0%, 취업자 59.0%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니트의 경우 잘하는 것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남) 건강상태 인식도 부정적이었으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44점, 실업자는 3.54점, 취업자는 3.53점으로 나타남), 본인의 적성 인지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이다(적성 인지 비율이 니트의 경우 59.6%로 취업자의 64.8%에 비해 크게 낮은 편).

또한 니트는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외향성(니트는 9.90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0.40점, 취업자는 10.30점), 친화성(니트는 10.56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11.17점, 취업자는 10.80점), 성실성(니트는 9.69점, 실업자는 9.74점, 취업자는 10.12점),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낮고(니트는 9.43점, 실업자는 9.91점, 취업자는 9.66점), 정서불안정성은 높아(니트는 8.09점임에 비해 실업자는 7.48점, 취업자는 7.75점) 상대적으로 성격이 덜 긍정적이며, 고교 재학 중이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존감도 낮아서(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니트는 3.57점에 불과했고 실업자는 3.77점, 취업자는 3.74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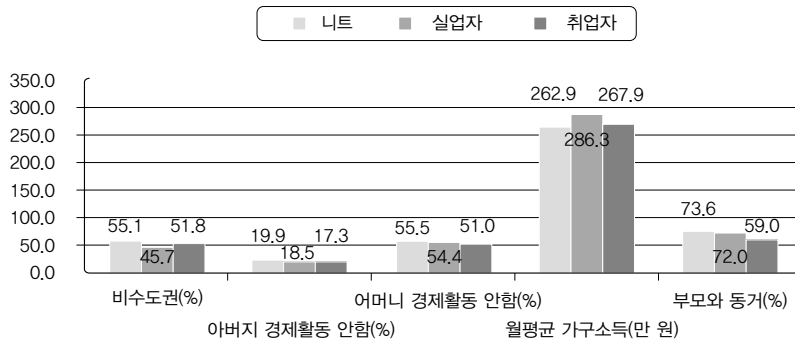
5) 니트는 비경활자의 '1개월간 구직안한 주된 이유' 문항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니트의 범위를 가장 크게 해석(접근)하는 방향으로, 비경활의 명백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재학 중이어서', '군복무 중이어서'라고 응답)만 니트에서 제외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진학 준비 중', '취업시험 준비 중', '자격시험 준비 중', '구직활동 의욕 상실', '일하고 싶지 않음', '결혼, 육아, 가사', '건강상 이유', '경제적 부담 없음', '사업 준비', '발령대기', '군 입대 예정', '기타'로 응답 시 모두 니트로 간주하였다.

니트의 경우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자격증 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이나 창업, 능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참여 비율은 니트의 경우 3.1%로 실업자 4.3%, 취업자 3.9%에 비해 낮았고, 교양, 취미교육 참여 비율도 니트는 2.1%로 실업자 4.3%, 취업자 3.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니트의 경우 평일기준 1일 컴퓨터 사용 시간이 1.68시간으로, 실업자 2.99시간, 취업자 2.51시간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컴퓨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간 독서량도 4.12권으로 실업자와 취업자의 4.85권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운동시간도 니트는 2.18시간으로 실업자 3.91시간, 취업자 2.6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니트의 경우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이렇게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대외적인 사회 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니트의 참여 비율은 2.9%로 실업자 10.6%, 취업자 11.1%에 비해 크게 적었고,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비율도 3.3%에 불과해 실업자(7.5%)나 취업자(9.1%)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임금수준, 취업 지역, 정규직 여부 등)가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취업지원정책이 병행될 경우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니트의 유보임금은 189만 원 수준으로 취업자의 212만 원에 비해 23만 원 정도 낮다.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실업자의 28.7%에 비해 크게 낮은 21.2%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취업자의 63.1%에 비해 매우 낮아 5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낮은 반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니트의 경우 44.5%로 취업자(39.9%) 및 실업자(35.1%)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그림 8. 니트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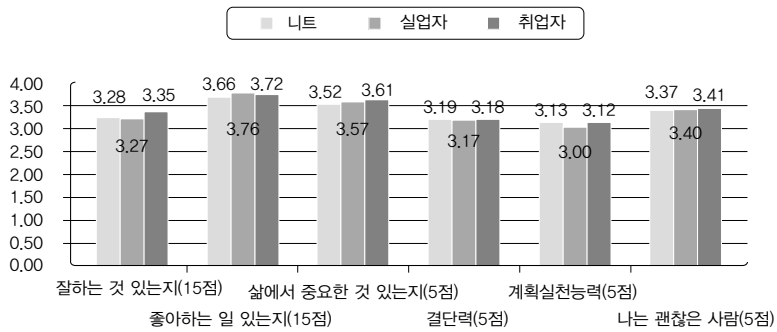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9. 고교 때 자아관

(단위: 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이슈 분석

그림 10. 고교 때 건강상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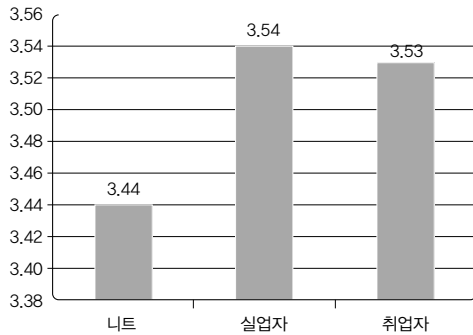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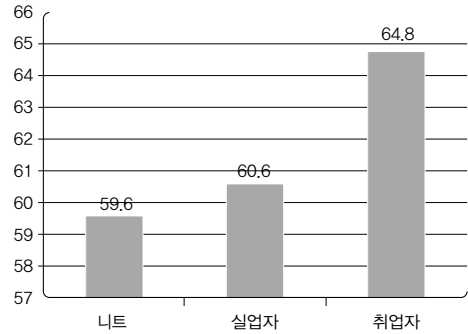


그림 11. 고교 때 적성인지 여부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2. 성격(Big5)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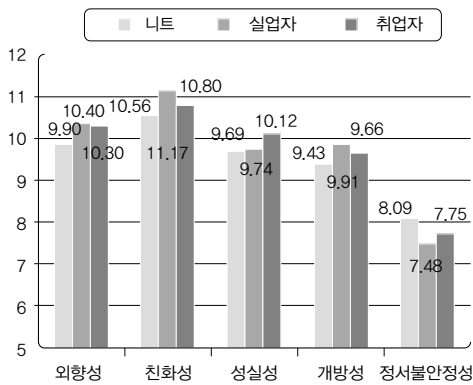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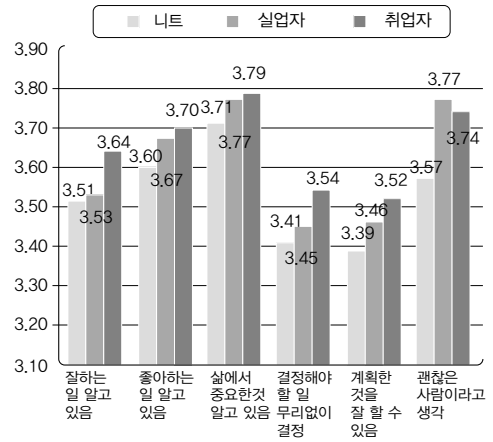


그림 13. 자아관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4.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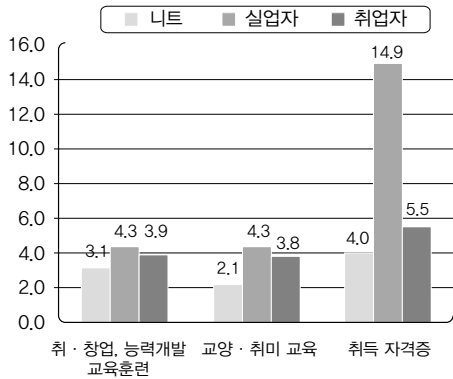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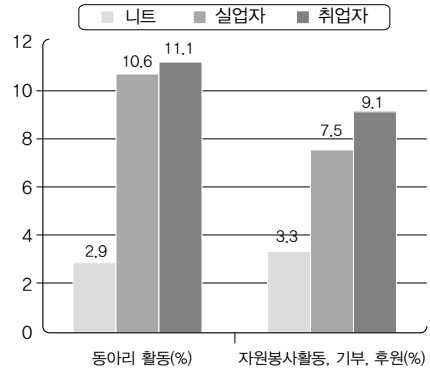


그림 15. 사회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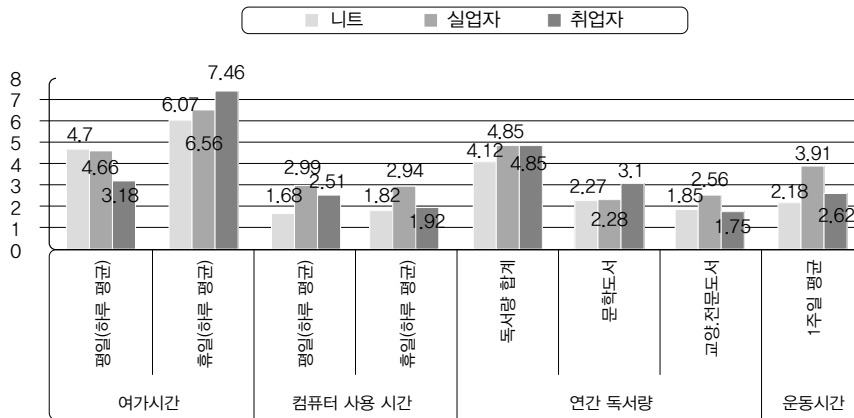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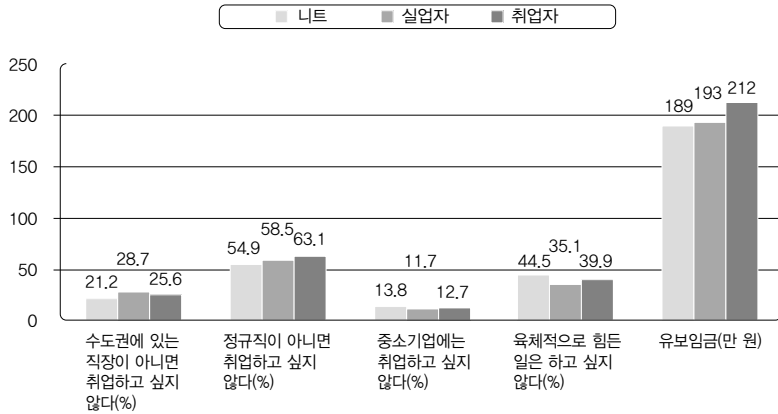
그림 16. 자기개발활동

(단위: 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그림 17. 취업눈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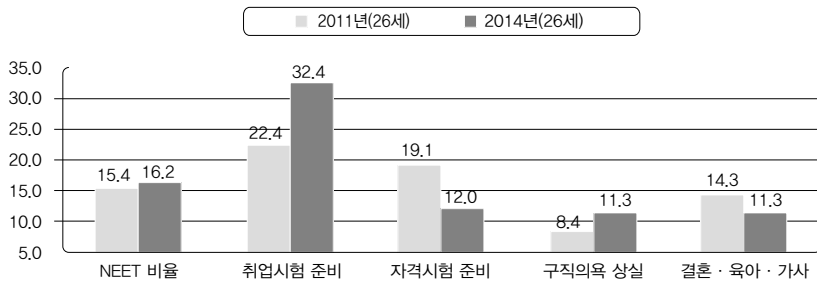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편, 동일 연령대 청년의 시간에 따른 니트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의 비중이 증가했고 내부 구성도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만 26세 청년의 니트 비율은 16.2%로 2011년 당시 만 26세 청년의 15.4%에 비해 상승했다. 또한 구직의욕 상실 니트의 비중이 높아지는(8.4% → 11.3%) 등 니트의 내부 구성도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2011년 만 26세와 2014년 만 26세의 니트 현황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니트 청년의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니트 중 약 55% 정도가 핵심 정책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10년 니트 상태에 있던 만 25세 청년이 2014년까지 5년간 어떤 경제활동상태를 보이는지 추적해본 결과에 의하면, 니트 상태에 5년 내내 머물러있는 장기 니트 비율은 11%로 나타났고, 최소 2회 이상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고 있는 반복형 니트는 44%, 2011년 이후 니트 상태를 벗어나 니트로 재진입하지 않은, 따라서 니트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일시적 니트는 4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어도 니트의 절반 이상은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거나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25세 NEET의 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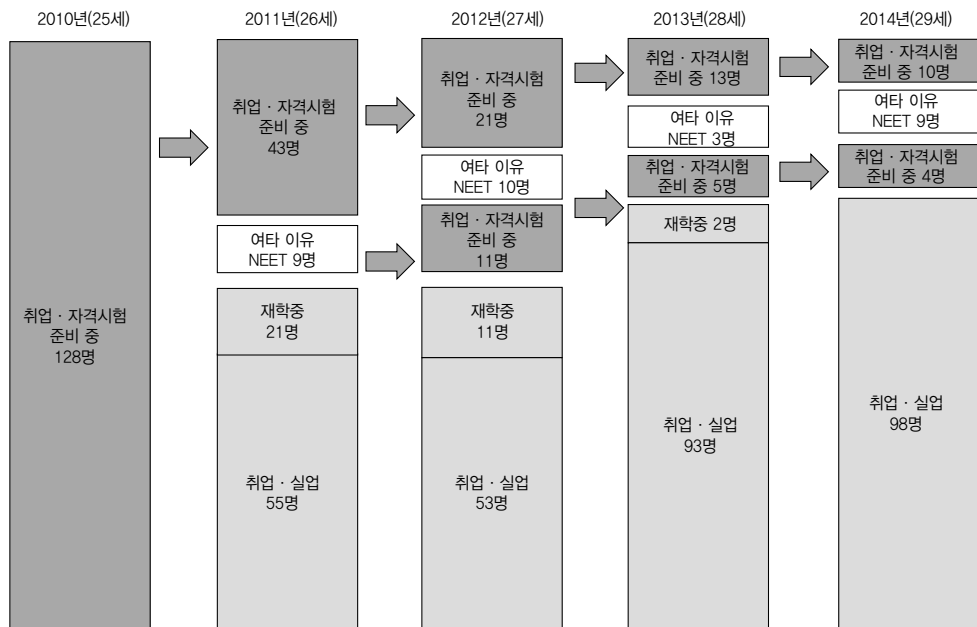
연도(연령)	2010(25세) 7차		2011(26세) 8차		2012(27세) 9차		2013(28세) 10차		2014(29세) 11차	
NEET	327 (100.0)		계속 NEET	115 (35.2)	계속 NEET	68 (20.8)	계속 NEET	44 (13.5)	계속 NEET	36 (11.0)
							NEET 탈출	24 (7.3)	NEET 탈출	8 (2.4)
							다시 NEET	13 (4.0)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47 (14.4)	NEET 탈출	34 (10.4)	NEET 탈출	19 (5.8)
							다시 NEET	13 (4.0)	계속 NEET	8 (2.4)
							NEET 탈출	34 (10.4)	NEET 탈출	5 (1.5)
			NEET 탈출	212 (64.8)	다시 NEET	35 (10.7)	계속 NEET	16 (4.9)	계속 NEET	11 (3.4)
							NEET 탈출	19 (5.8)	NEET 탈출	5 (1.5)
							다시 NEET	16 (4.9)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77 (54.1)	다시 NEET	16 (4.9)	계속 NEET	5 (1.5)
							NEET 탈출	161 (49.2)	NEET 탈출	11 (3.4)
							다시 NEET	16 (4.9)	다시 NEET	14 (4.3)
NEET 탈출	161 (49.2)	NEET 탈출	147 (45.0)							
NEET 비율	100.0	35.2	31.3	27.3	26.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이슈 분석

한편, '취업·자격시험 준비' 니트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탈출하고 있어, 우려와 달리 장기간 취업·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직의욕 상실(포기)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0% 이상은 5년 뒤에도 여전히 구직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취업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고(128명 중 14명), 또 다른 이유로 니트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128명 중 23명) 거의 20% 가까운 청년들이 여전히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취업·자격시험 준비'니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2010년(25세) 취업·자격시험 준비자의 이후 5년간 지속 정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Ⅲ.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니트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비경활 니트 비율이 높아, 취업의사 고취 및 구직활동 참여 유도가 니트 비율을 낮추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이상 고학력 니트 비율이 매우 높아, 니트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니트 비율이 증가 양상을 보이고, 구직의욕 상실자로 대표되는 가장 부정적 성격의 니트 비중도 증가하여 니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문제는 그 대책들이 주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대상이어서 청년 니트를 줄이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청년 니트가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지원서비스로서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고용부, '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가 유일한데, 이 사업 역시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실제 청년니트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 일부 구직 단념자를 구직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성공은 니트를 일정 정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니트는 직업기초능력의 부족, 자존감 결여, 잘못된 생활태도,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청년고용대책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니트의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니트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 출신이고 여전히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아, 가구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니트 대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고교생활 당시의 낮은 자존감, 적성 파악 미흡 등이 학교 졸업 후의 니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단계에서의 자신감 배양, 적절한 진로지도 등이 니트 예방 대책으로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부족이 니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단순한 고용대책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니트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대책 이전에 보다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

적인 접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일정 수 니트의 경우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트 대책으로서 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인지할 수 있었다. 니트의 경우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적은 상황이므로, 보다 성실한 생활 관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중요해 보인다. 성격변화와 생활태도의 변화가 전제된다면, 취업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니트 대상 고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의 일부 부정적 취업의식에 대한 교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니트를 지속 여부에 따라 일시적 니트, 반복형 니트, 장기 니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니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니트와 반복형 니트가 주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정연순 외(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채창균 외(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